

第3回 女流隨筆懸賞募集 當選作

- ☆ 韓國火災保險協會는 78年度 第3回 女性 불조심 隨筆 및 保險加入 成 ☆
- ☆ 功事例(手記)를 懸賞募集했다 지난 5月 9일부터 6月 9일까지 1개월 ☆
- ☆ 간 현상모집한 이번 隨筆募集에는 總 200餘編이 應募하였는데 作家 ☆
- ☆ 孫素熙氏가 엄선하여 優秀作 1편, 佳作 2편을 選定했다 또한 當選 ☆
- ☆ 作은 아니지만 현상응모작중 讀者들에게 敎訓이 될 수 있는 좋은글 ☆
- ☆ 2편을 함께 掲載한다 <編輯者 註> ☆

全國主婦隨筆最優秀作

조심조심만이 불조심의 길



김 정 자

<경북 금릉군 지례면 지례중학교>

국민학교 23학년때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서 골짜 부익에 부쳐 두었다

적광석의 불길이 건물 장벽으로 뿜뿜 불려 내뿜고 여기저기 퍼 골바가지가 덩굴고 반쯤 탄 성냥개비

지금부터 25 26년전이니까 연탄은 구경하기도 어려웠고 빨감들은 장작 슬갑 삭정이로 하던 때다 한 아궁이 잔뜩 더뒀어 놓은 슬갑은 금방 타 버려서 불을 때면서 잠시도 먼 눈을 팔수없다

부엌 바닥으로 나온 불이 나무더미에 불을 것 같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오늘같이 30에 육박하는 더위에는 불이란 말만 들어도 두근해지지만 인류가 발견한것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불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자연이 자원이 모두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불이 없는 세상을 단번 상상해 보기로 하자

공기가 없을 때처럼 숨쉬는데 곤란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당

장 우리의 식생활이 원시 강터의 생식으로 변해야 한 것이다 싱식을 함으로써 굶은 점도 있을지 모른다 러지단 우리가 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음식물의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음식이 비로소 조리를 함으로써 맛을 내는 것이 아닌가 불고기, 파킨한 한잔의 우유 고슬고슬 알맞게 퍼진 밥 나근한 송충 거기에다 파근한 방바닥의 운근한 감주 육탕에서 탄력할 수 있는 기분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붙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살맛이 있겠는가

일마전 여의도 아파트에서 난 불은 충분히 구출될 수 있었는데도 어린 두 딸을 저승으로 보낸 아픈 이야기로 세상의 모든 엄마의 가슴을 기르르하게 하는 경증과 고힘을 넘겨 주었다

“쫄쫄 제 곱에 난 불을 누가 지리랄 생각은 양고 이웃 사람만 부르러 다니다가 어린것들을 태워 죽여 경진 나간, 여권내 같으니라구 애들 던져 깨워 밖으로 내보내는데가 먼저 할 일인데” 언뜻 사람들의 핀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영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느건 불난 집이라고 불길은 지긋고 아마 그 불길이 사람의 머리를 마비시키는가 보다 오죽하던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말하는 “부랴부랴”라는 말이 ‘남이야 불이야’에서 나왔는지 알든가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한두가지라도 귀중품을 건져내는 것이 서명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스에 짐작하던 사람도 붙이나면 당황하여 냉정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한다

10년전의 일이다 그동안 기성스레 불조심 포스터를 그려 두진 덕분인지 우리집에서는 불난번 난 일 없이 불난 집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 굴이나 꾸었으랴 내가 시골학교의 교사로 자취생활을 하고 있을때이다 마침 라디오를 트니 불이 난 뉴스를 전해 준다 ‘원’다방과 “협동 이발관”이란 말이 나오자 나는 그만 아찔했다 우리집은 바로 “원”다방 아랫층이

“협동 이발관”과 벽을 사이에 둔 가게였기 때문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역전에서 잠도 설친 장사꾼에 겨우 기반이 잡히고 가게도 잘되어 간다고 기뻐 하시던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김전에 나가니까 벌써 만기서 보아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위로 벽이 시꺼멓게 허물어져 있었다 엄마는 일마전 사담처럼 경박한 얼굴빛으로 넋을 잊고 계속고 친구들은 엄마를 위로하느라 음식을 권하면서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어찌구무 없이 뼈아픈 갈 수도 있으나 한 건에는 불에 그을린 몇가지 물건만이 덩굴고 어머니는 “어찌나 어찌나”하면서 발만 구르다 귀중품도 꺼내지 못했다고 라신다

火因은 다방이다, 이발관이다 라면서 불난 곳과 人因을 가리지 못했지만 이발관에서 發火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발관에서 난로 연애수건을 넣어 증은 것에 불이 붙어 벽을 타고 올라 이층으로 지긋았다고 한다 그것이 서벽이었다니 연단을 갈고 불문을 닫지 않은 채 이만소를 비웠으니 난로 과일로 일어난 불이었나 보다 發되어 다방을 경영하던 초인은 복구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니 형편없이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 가게도 다시 짓기까지 여러 달을 노번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겨울에 접어 들었는데 얼마 아파의 고생은 극심했다

일본에서 절공소를 경영하실 때 그 심한 지진이 일어나도 용접하던 산소등을 감그시고 집안의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한 뒤에야 피하셨던 꼼꼼하고 짐작하신 아버지께서 이

웃 때문에 어쩔수 없는 괴마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적십자사에서 는 실과 보구 슬 양은그릇 몇개 맞지도 않은 옷, 누비 이불을 보내 주어 지금까 1 용도도 모르고 내왔던 적십자회사의 쓰임을 알고 그말게 생각되었다 우리도 세들어 있던 그 가게가 화재보험에 加入이 되어 있었더라면 火因은 송두리쳐 괴마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알것이었이 불행을 맛보고서야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을

다른 재난나 달라 붙이란 우리가 경스 세심한 주의란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부주의로 인한 피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내용의 불조심 고어를 다시 한번 붙어 본다 「겨린 불도 다시 보자」 「본내고 울지 말고 불조심하자」

건조했던 火 暴은 어느이 보다 산불이 많았다 해였다 지극히 작은 불씨, 무심히 던진 성냥개비에 불이 붙어 막대한 나라의 재산을 재로 만드는 신수를 범해서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전 정보의 수단그루 나무가 등산객이 순간적인 부주의로 사라졌다는 라디오 放送을 들으며 그동안 산림수과를 위해 애쓴 결과가 너무도 허무하여 발을 구른다

점심 식사후 두 선생님께서 주고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이태리 포프라를 15년 정도만 키우면 내 퇴직금보다 많은 수입이 나온단네”

“자넨 그럼 제법 부잘세

“나라에서는 나무에 거름까지 하라고 3년동안 계속 비료를 무상으로 배급하고 있지 이번 일요일에

는 포푸라나무에 기름을 넣어아지”
 나무의 기름이란 것을 보여주는 데 꼭 아기주먹만한 조개갈기도 하고 조약돌 갈기도 한 둥근모양으로 딱딱한데 그 한알에 여러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고 한다 10년생이던 3만원가량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나라에서는 이도록 治山에 땀쓰고 있는데 지난 조파일 날도 절에 온 사람들이 던진 불에 수전정보의 나무가 툭다고 하지 않던가 더러 외과를 보노라면 밀림지대에서 저절로 山火가 나서 무섭게 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산의 나무정도로는 자연산파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해마다 그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낸 것은 문화국민이라 자저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수지가 아닐 수 없다 또 어디에선가는 산불을 끄다가 학생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누군가 무책임하게 버린 조그만 불씨 때문에 잔뜩 없는 착한 학생이 진파도

중에 희생되었다던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옛날에는 머느리가 불씨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살림 못하는 머느리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부싷돌로 불을 만들던 옛날 허지만 오늘날의 불씨는 모든 씨앗중에 가장 혼란 씨가 아닐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빠지지 않는 상가 백화점 호텔의 불들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지리야하는 행사로서만 맞아야하는가

공산군의 도발도 무섭고 전염병 만연도 잔지도, 폭우도 모두 무섭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전연 예기할 수 없고 조심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 전재지변이다 이에 비해 불이란 조그만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사람 한사람이 절두절미하게 불조심을 生活化해야겠다 가정의 전기 배선은 누전의 위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살피고 가족에게

도 화재 위험의 실례를 들어 건대 로 주의 계몽을 시켜야 될 것이다 아직도 불이 켜있는 난로에 기름을 붓다 기름에 불이 붙는 사실을 보면 도무지 주의에 게으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재산만이 아니라 나라의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 각자가 불조심을 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한다 현대의 문명과 정비례해서 따르는 불의 사용이 넓어짐에 따라 생기는 불의 위험을 알고 괴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온다 무시무시한 불이 없다면 저 고향과 같은 은근한 향기를 맞볼 수 있으라 불의 고마움과 무서움을 느끼면서 실수 없이 생활해야 하겠다



동 생 恩 이



이 해 경

<경기도화성군남양면남양중합고등학교>

「불이 났어요 불이요! 바로 길 건너 세탁소에서요!」

아래층에 세들어 사는 문방구 집 주인이 엄마가 내게 달려오며 이르는 말이 었다 길 건너 세탁소라지만 바로 코가 닿는 앞집이었다 자동차 한대가 겨우 빠져나갈만한 좁은 골목길이니 달이다

시장을 보아오던 바구니를 주인이 엄마에게 떠맡긴 나는 집을 향해 달음박질을 쳤다 소방서차를 부르는 다이얼번호가 뭐였던가 뭐였던가 머릿속은 방향도 없는 아득한 곳을 단리는 느낌이였다

검은 연기는 머리를 문 형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다 불내가 바람결을 타고 벌써부터 코끝에 닿았다

불이 났다면 우선 불바다에 구경을 하러는 사람들 두성이다 나는 모여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물이 걸적거리는 폭탄을 아랑곳하지 양으며 집 쪽을 향하였다

근에 재곤이가 어찌하고 있는지

가 제일 걱정이 되고 궁금하였다 큰 애는 바로 불이난 세탁소 옆으로 조그만 인쇄소를 차리고 있었다 그 인쇄용 기름하며 쌓아놓은 종이 더미 부스러기들이 모두 인화되기 쉬운 것들이니 더 걱정이 되었다

목구멍이 칼칼하게 쓰리고 막혀왔다 쇠의 붉은 녹을 태우면 이런 내음이 난까 역겹고도 매캐하였다 불길은 검은 그으름과 함께 번져 오르고 병원자가 몇대 사람들 틈을 비집어 뚫려섰다

「불에 다진 이 까지 있는 모양이구나」

길의 사람이 하는 혼잣말에 나는 가슴이 뜨끔 내려앉음을 느꼈다 아니다 다를까 세탁소 주인 박씨가 머리털이 온통 그슬리고 테인 모습으로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다 실신한 것같이 보였다

「재곤아 재곤아 어디 있냐?」

나는 크게 소리를 질러 큰 애의 이름을 불러댔다 인쇄소로 불이 옮겨 붙은지 이미 오랜듯 싶었다

거의 다 불길에 사워지고 “병설 인쇄”라고 붙여 걸었던 간판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죽 낫잠이라도 자다 이 난리를 만난거나 아닐까

누가 이 경황에 잠이든 남의 집 식구 생각이 나기나 했을 것인가 싶었다 대뜸 어지럽증이 일었다

“엄마 재곤이 령 세탁소 사람 몇하고 파출소에 갔어, 몇가지 조사할 것들도 있고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같아”

둘째놈 재영이가 나를 불안의 그늘에서 인케웠다 재영이는 이제 막 학교에서 돌아온 긴이였는지 아집에 입고 나간옷 그대로였다 어찌서 아이들은 어너운 상황에서 보게 될 때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재영이는 바위만큼 든든하게 앞을 막고 서있었다

소방서 사가 근 길까지 새 대가와 닿아섰다 호스를 탄 굵은 끌줄기가 뻗어나갔다 오투르기 소리가 귀에 어지럽다 이젠 나도 쉬이어

불구경이다 불길은 곧 잡히기 시작하였다 가끔 멍텅이 허연 연기가 물에 쉼 콧김을 내면서 잦아들기도 했다

꽤

연이어 붙어있던 다섯 채의 가갯터는 하루의 반나절도 걸리지 않고 재로 화하였다 세탁소 인쇄소 담배가게 솜들집, 그리고 문을 닫아두었던 빈 가게 그들 가게는 그곳에 오릿조릿 붙어있던 그대로 그슬린 모습을 드러내보였다

불은 모두 태웠다 여윈 뼈대 지름 가늘고 휘인 시멘트 골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에서 제대하여 8개월 여를 무위도식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지 1개월 남짓이나 될까 한 재꾼이 그보다 곧 등 록 마감일이 닥쳐오는 개형이의 등 록금 마련 또 신장염으로 열흘 쯤 누워있는 남편

몇 해나 걸린 신고 끝에 가갯터를 겨우 작만하여 그것을 다시 다섯 개의 점포로 나누어 세를 놓았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빛도 정산하지 못한 채 재로 화한 것이다 혼자서 안자게는 내색하지 않으며 꾸러왔고 절약해온 날들이었는데 정탈이지 남편만이라도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펄펄 나다녀도 내 걱정은 덜할 것 같았다

불은 세탁소의 실내였다 세탁소 용 대형 무슨 기계인가의 기계조작의 불실로 인한 화재였음이 드러났다

꽤 때문만 나서던 눈앞으로 달려와 맞닥뜨리는 폐허의 자리를 나는 얼굴을 돌리고 지나지곤 하였다 언제 다시 저 가갯터를 손길을 해 쓸만한 가갯자리로 내놓을 수 있을 까고 막막했다

내가 육학년이고 두 살이 아래인 동생 은이가 사학년일 때 나와 은이는 곧잘 불장난을 하곤 했다 고물거리며 타오르는 주장빚 불십지의 여린 불꽃의 혀를 주의깊게 보노라면 마음이 들떠 올랐다 만일 만져도 레이저 않는다면 손으로 움싸 움켜쥐고 싶었다 특히 잔디밭을 태우는 불은 아금아금 그 타는 면적을 넓혀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다 한잎 한잎 잔디의 잎을 먹어지워 겉게 그슬린 자리를 드러내놓던 불꽃

그 더 거울 그에 나와 동생은 공동묘지의 자리를 전여평 가까이 태워먹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물론 전날 저녁의 우리들의 불장난은 돌만의 단단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그 소소한 불장난은 작기만 한 일이 아니었다

“옛저녁 어떤 녀석들이 불장난을 했었던 게야 불씨가 남아있다가 밤새 옮겨 붙어서 잔디가 푼탕 그슬렸다는군 쫓 큰 불로 번지지 않았기 망정이지 공동묘지 잔디를 푼탕 벗겨내는 놈들이 없나 원 잠!

아버지는 그 화재의 불씨가 바로 당신의 두 딸임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조그만 불꽃은 숨이 완전히 진듯 하다가도 한자락 바람 끝단 잡아도 숨을 뉘일으켜 살아난다 아마도 그 거울의 불도 그렇게 하여 일어났던가 생각이 뜨여진다

다섯채 가게를 모조리 태운 이른날 저녁에 은이가 집으로 달려왔다 재평이가 전파를 했더란다 이야기를 듣는 길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리고 곧 불이난 자조지종을 물었다 다시 생각하기도 말을 꺼내 이야기하기도 내키지 않았지만 자근

자근히 불이 난 경위를 일러주었다 “언니 생각나우? 옛날 우려 어렸을 때 나하고 공동묘지를 푼탕 태웠던 일’

은이는 모처럼 웃을 일을 찾아낸 듯 잠깐 웃어댔다

“뭐 그때 그불 우리가 번 게 아냐! 푼탕없이 발로 다 비벼 끄고 집으로 갔었잖아 아무리 손바닥만 하게 불장난 좀 했던게 그렇게 번 겠겠니”

나는 그제나 이제나 막무가내로 내말이 옳음을 굳이 내세웠다

“또 공동묘지 근처라 도깨비불이 번진거라고 어저저 때를 쓰려구, 언니”

은이가 이쯤 나오면 나는 입을 다물어 두는 것이 더 쉽다 도무지 옛일이라 아승아승하기만 하니 말이다

“그때 어찌던 불씨 한개가 잔디 속에 숨어있다가 자름 불을 붙여 그경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여기 이것 받아두어 화재보험증서야’

나는 무심코 받아 들었다 첫 보험금을 청구 시작해서 9회분까지 꼬박이 들어가있는 화재보험증서였다 도름란 두개의 손바닥크기 보다 좀 더 큰 보험증서는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었다

눈 앞을 부우영한 눈물이 가로막았다 안자게는 잘 잠은 눈물이 솟아나왔다

“기집애가 당돌하게 쳐서 언제 나 나는 네 뒷편이나 지키는구나!”

나는 눈물반 웃음반으로 은이의 손을 꼭 그러쥐었다

은이가 아주 오래전에 내게 함께 보험에 들자는 얘기를 비준 일이

있기는 했다 가정살림이 좀 어려운 친구가 보험의무를 시작했는데 도울셈도 되니 들어두자고 했다 또 기일이 차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으니 좋지않으나며 내 뜻을 물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컷등으로도 듣지 않았었다 도무지 어리석고 실속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내렸었다 정말이지 내게는 결코 먹혀들만한 소리가 아니었다 기껏 이런 말로 쏘아부지거나 했다

“애 년 모를테지만 말야 생명 보험들면 죽고 싶다더라 화재보험 들면 아바 불나고 싶을건!”

그후 얼마동안 나는 정말이지 용의주도 하고 만만찮은 주부이다 싶은 콧대를 세우고 있었다 보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더 알고도 하지 않았었다

동생 은이는 지난봄 의사인 남편을 따라 아이들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누 돌아오겠다고 하며 떠나갔다 언니인 내가 뒷켄이나 지키게 어렸을때 부더도 매사에 안목이 넓던 동생은 그때 우리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다 가끔 은이에게서 글이 부쳐져 온다 보내오는 글마다 동생같은(?) 언니를 염려하고 보고싶어 하는 글귀이다

재곤이는 큰인쇄소를 다시 꾸렸고 재형이는 대학 졸업반이다 또 남편은 주만이면 낚시를 떠나곤 하는 예전의 버릇이 되살아났다

“왜 얼마가 전에 무얼 보았더니 언니한테는 火氣가 따라 다닌다고 하지 않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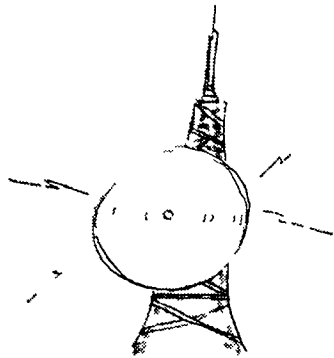
동생 은이의 하던 말이 떠오른다

글세다 파기라는 것이 내게 어떤 형태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유별나게 무엇을 태우기글 좋아하고 언깃내를 좋아했었다 그것이 소소하게 더어오르는 파안한 소망같은 염원의 불꽃같아서 었다 언깃내의 소박함하며

나는 가끔 불이 나는 꿈을 꾸다 세탁소의 화재사건이 난 이후부터이다 불은 활활 일어 내 집 대들보를 찢기도 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무슨 수를 내서든 불을 끄고서 야 잠에서 깨어난다

불이 나는 꿈은 길몽이라고 하던데

삼가하더 불은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후회

장 정 님

<서울특별시 중구만리동2가199의73>

어느새 싱그러운 오월이 다가고 여름의 문턱, 유월이 다가오고 있다 우거진 신록 높고 맑은 하늘 알맞게 따거운 햇볕 남들이 모두 좋아하듯 이 오월을 나는 짓눌린 마음으로 무겁게 살고 있다.

내가 극복 받은 계절을 남들처럼 밝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조이며 지내는 것은 금년에 고등학교 입학년에 진학한 딸아이 때문이다 아니 딸아이 때문이라기 보다 딸아이로 하여금 정신병원 출입까지 하게 만든 나의 섣불리함이 실수, 그 죄책감 때문이다

이제 여름이 되면 모든 여학생들은 반소매의 날아갈듯 산뜻한 교복들을 입고 한껏 부른 사춘기의 발랄함을 뽐낼 것이다

그러나 중학 삼년간의 여름내내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도 유독 혼자만이 긴소매의 춘추복을 입고 학교문을 드나들어야 했던 딸아이는 금년에도 웃음을 잃고 그슬픔을 되새기리라

처음 딸아이가 큰 과상을 입었을 때만해도 나는 생명을 건진 것만으로 큰 다행으로 여겼다 현대의술이 극도로 발달해있으니 치료만 받으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권위있는 큰 병원에서 몇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팔의 흉터를 아주 지울수는 없었다 워낙 큰 과상이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수술이 끝난 후 까지만 해도 어린나이였던 딸아이는 보기 흉한 팔의 흉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그저 얼굴의 작은 흉터가 보기 싫지 않게된 것만을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해갔다 특히 중학생이 된후 젓가락을 입게 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더니 마침내 중학 삼학년 때는 경신이상의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정량리 국립정신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팔의 흉터로 인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이라고 했을때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없이 울

었다

다행이 증세가 가벼웠기에 통원 치료를 했고 일개월의 휴학후 다시 등교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나는 여름이 돌아오면서 다시 무거운 압박감으로 남몰래 몸부림 치는 것이었다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언제나 벗어나게 될런지? 딸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니 어쩌면 평생을 두고 이 아픈 후회를 되풀이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 견디기 어려운 명에는 섰되지 않았을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지워질 수 없는 그 순간의 실수를 나는 다시 참회의 심정으로 조용히 되새겨 본다

시골 여학교를 졸업하고 조용히 집안살림을 돕고 있던 내가 서울에 올라온것은 지금의 남편인 그이와 결혼한 며칠후였다 운전병으로 기대한 그이가 서울에서 운전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살림을 서울에서

시각한 것이었다

당시 영업용 택시의 운전수 수입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이는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집념으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자를 몰곤 했다 쉬는 날도 될 수 있는대로 줄이려 했다

나도 그이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같은 셋방살임을 하는 아주머니를 따라 길가에 리어커를 놓고 과일을 팔았다 처음엔 그이도 말렸지만 결국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이렇게 들어서 노력한 덕분인지 우리는 삼년만에 조그만 가게 하나와 안집이 달린집을 사서 전차동 단자승으로 부터 서대문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집을 산 후에도 그이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나는 구멍가게를 벌였다 그때 벌써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 가게를 보기가 힘들었지만 개산을 할뿐이라도 늘려보겠다는 욕심에 이를 악물고 괴로움을 이겨냈다

그런데 어느날 뜻밖에 그이가 중독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 때문에 그이는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상저의 부유증으로 렌들을 오래 잡으면 열구리가 걸려서 건달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기회에 워렘한 운전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다 그래서 시각한 것이 튀김장사다 한잠 재미를 보고 있던 먼 친척이 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큰 밑천이 안 든다는데 마음이 쏠렸다

장사는 처음엔 시들했다 튀김 솜씨가 시원찮은 데다가 많이 알려

지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우리 가게는 점자 불비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우리 부부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 고보니 나는 가끔 정신없이 덤벼거릴 때가 생겼다

불때문에 저음 쏜이 난 것은 바로 이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팔개 월쥼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장사가 본 체도에 올랐을 때였다

계절은 봄이었지만 아직 잔 기운이 가지지 않은 탓인지 아집에 잔물을 만지면 제법 자전던 어느날 나는 전날밤 먹다 남은 밥을 데워서 아집 때울 생각을 하고 석유곤로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얼마동안 타고르던 불빛이 자꾸 시들어 갔다 살펴보니 석유가 바닥이 나 있었다

나는 귀찮은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곤로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가 예상했으랴! 갑자기 평하는 소리가 나더니 석유곤로가 확 불길에 싸이는데 아닌가 나는 앓절한 기분으로 비명을 질렀다 마침 곁에 있던 그이가 썰가마니며 물통을 재빨리 뒤엎어 불길을 잡았다

잠시후 그이가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래? 우리집은 기름을 많이 만지니까 항상 불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행이 곤로와 석유병에 기름이 적었으니 망정이지 가득 들었드라면 무슨 수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겠어 ”

나는 이때 불조심에 대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했다 조그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를 깊이 깨우쳐야 했다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항상 불에 대하 경각심을 가졌드라면 이렇게 무거운 죄책감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직접 뼈아픈 재앙이 휩쓸고 가지 않으면 웬만한 교훈은 헛사리 잊고 만다 나도 시일이 흐를수록 조그만 실과사건을 자중 잊기 시작했다 그이가 불조심 하라는 소리를 엄벌 되듯 할때는 되려 짜증까지 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이의 그러한 조심성 때문에 기름과 불을 많이 만지는 장사를 하면서도 수년간은 작은 실과조차 없이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화재예방이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나는 큰 일을 지지르고 말았다 딸아이가 갖 주된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해 봄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됐다 그대로만 간다면 수년안에 계획대로 기골에 내려가 남부럽지 않은 농사-- 지을 수 있으리라 싶었다 그러나 세상일 그계 뜻대로 돼주질 않았다 아니 뜻대로 꽤주지 않은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밤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됐다 우린 매일 그랬듯이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교대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딸아이의 밥상을 미처 지우지 않았던 그날은 예외 때와 달리 내가 먼저 먹고 나오려고 뒷마당을 건너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에 들어서니 딸아이는 밥상을 그대로 둔채 어느새 깊이 꿈을 떨어져 자고 있었다 나는 밥상을 대충 지우고 등기밥을 재빨리 떠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잠박하고 전등이 나가 버렸다 경대설함에 서 전에 쓰다 남은 양초를 꺼내 불을

불인 나는 쉽게 눈에 띄는대로 딸아이의 조그만 나무재상에 양초를 붙였다

밥을 다 먹고, 그이의 밥상까지 보고 난 다음 나는 촛불을 끄까하다가 양초길이가 아직 상당히 남은 데다가 그이가 들어와 다시 불을 켜려면 불편하리라 싶어 그대로 두고 언뜻 나가서 교대하기로 작정했다

가게에 나가보니 다짐 손님도 한 사람밖에 없어 그이도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때 손님이 세사람 들어 왔다 돌아선 그이는 얼른 식은 튀김이나 몇개 덤벼주고 들어가겠다 했다 나도 그쯤이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연거푸 손님이 밀려드는 통에 나는 그만 촛불을 켜놓고 나온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든 손님이 나가고 그이와 함께 한숨을 돌리는데 안방쪽으로 부터 비명이 들려왔다 나든 급히 뒷문을 밀쳤다

아자! 안방문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길 속으로 부터 딸아이의 비명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그이가 급히 뛰어가 미닫이 문을 확 잡아 제졌다 동시에 불길이가 확 쏟아져 나왔다 순간적으로 주춤

던 그이는 곧 다시 방으로 뛰어 들었어갔다 곧이어 딸아이를 안은 그이가 한개의 불덩어리처럼 튀어나왔는데 딸아이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왼쪽팔 쪽이 계속 불에 타고 있었다

자기 옷에도 불이 붙었던 그이가 딸아이를 재빨리 내려놓는 순간 나는 급한김에 얼른 달려들어 딸아이의 옷을 확 잡아 벗겼다 그러자 아 기기엔 그 곱던 딸아이의 하얀 피부 대신에 보기에도 끔찍한

지금 다시 교련하기도 싫은 모습이 내 눈을 뒤집어 버리는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어저구니 없게 어리석은 것이었다 타버려 옷에 달라붙은 피부를 옷과 함께 헐것 잡아다녔으니 그모양이 어찌겠는가 허나 그때는 이런것 저런것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좌우간 당시 나는 불이고 뭐고 경황없이 딸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약간 뒷 이야기가 되겠지만 불행중 다행이랄까 우리 안방이 다른 집과 연결이 안된데다 이웃들의 신속한 도움 그리고 재빨리 출동한 소방차 덕분에 피해는 우리집으로만 그쳤다

이렇게 해서 왼쪽 팔에 끔찍이도 흉한 파상을 입은 딸아이는 신촌의 모 대학부속병원으로 옮겨 오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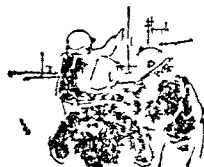
간을 두고 굳어버린 힘줄과 사라져버린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 이자삼자 거름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디딤돌리 장만한 재산을 몽땅 털다싶이 디밀어야 했던 치료비는 제저 두고라도 딸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경은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찔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건만 딸아이의 원단은 결국 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도 왼팔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데다 그 흉한상처는 되살아 나기라도 하듯 아직도 거의 20여 센티나 검붉은 용트림으로 남아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감정이 예민한 사춘기 나이가 되면서 딸아이는 달을 보이기 쉬운 여름이 되면 무척이나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정신이상증세까지 나타났을까 그러기에 나는 여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내 달과 바꿀 수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어떤때는 남몰래 이 불속에 얼굴을 파묻고 그 부주의했던 시절을 저주스럽게 우회한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 나는 불을 조심하지 않았던 경솔한 생활태도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무피속에 살아가야 할 모양이다 (끝)





全國主婦隨筆懸賞募集應募作

우리 女性의 火災豫防

趙 水 連

<경북 대구기 동구 신암 1동 603번지>

나는 불이 너무나 두드러진 二重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이 주는 經濟 利處은 실로 엄청나게 크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 우리 人間의 人智를 開化시켜 人間다운 人間으로 成長시켜 다른 動物과 區別시킨 것이 바로 불이며 이 現代를 사는 우리는 불 없는 生活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反面에 불이 주는 害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莫大한 것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피해는 지금에 와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학문명이 급속히 발달됨에 따라 人類의 생활영위는 고도의 연수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열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화재피해는 다발화되고 대영화됨으로서 이 또한 큰 사회의 두통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소방문제에 對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대책 연구에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勿論 그 까닭은 火災가 주는 人的 物的 精神的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害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火災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하는 방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결코 비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재예방 역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더 법국민적 次元에서 고려되고 급되어야 할 것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이제까지 火災豫防에 對해 一方的으로 사회제도에 거의 一任하다시피 하였으며, 자발적이며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화재예방에는 너무 소홀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某잡지의 기사를 보니 화재발생 장소의 30%가 주택이었다 이 늘

라운 통계를 보고 우리 여성 특히 우리 주부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한층 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바 있었다

또한 이 통계에서 나는 우리 女性이 화재예방에 對한 얼마의 정보 내지 지식만 가지면 장래의 火災발생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무릇 국가의 흥과 발전의 요소는 역시 물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부존 자원마저도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 處해있는 우리는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이 검붉은 연기로 化하여 허공으로 사라짐을 볼때 애석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짐은 공통된 것이다

화재예방이 사회적, 국가적 次元에서 크게 급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화재예방이란 말은 두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싶다 즉 그 하나의 해석은 글자가 가지는 뜻을 좇아 해석하는 것으로 불로 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미리 막는다는 逐語譯이다

그러나 火災를 모두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防火로 인한 화재의 發生 전제지변으로 인한 火災의 발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런것들을 인정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불가피한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행위 또한 화재 예방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火災발생시 消火하는 行動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여성은 괴난하는 행동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서 人命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火災預防과 더불어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근자에 77년도 火災事什을 分析한 통계를 읽어 본적이 있었다 그 통계에서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사건수가 전 화재 발생 사건수의 3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다른 화재 발생 장소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원인별 分析에 따르면 전기 유류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이 전 화재발생의 半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에서 보면 우리 여성들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실로 매우 크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에 좌우되는 화재예방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홀한 주의로 해서 작년(77년도)한해만도 무려 44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허공으로 사라졌

다고 한다

더구나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이 전 화재발생건수의 3할을 차지하는 현실에서의 화재예방이라는 과제의 해결책을 우선 여성으로부터의 지도 계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화재원인에 전기 유류 담배불이 半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택에서의 火災發生이 3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리 여성의 火災에 대한 경각심 내지 지식을 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女姓들은 화재예방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조금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이런 취지에서 다음에 우리 여성이 가질 자세를 밝혀본다

먼저 예비적 활동에 대한 사항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火災가 발생하기 以前에 취하는(豫防하는) 행동이다

첫째로 우리 여성은 남편들의 잠자리에서 담배피움을 방지하고 취침 전 화재로부터의 安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건물화재의 화재발생요인은 담배불로 인한 발생에 상당한 비율이 차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잠자리에서 피우는 담배로부터 발생하는 火因과 이불이나 옷에 着火되어 發火되는 것이 매년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이같은 위험한 습성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을 明示한다 뿐만아니라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해야 하며 이같은 습성을 버리지 않는한

숨가죽이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不幸으로부터의 요령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家族모두가 항상 취침전에 火災예방을 위한 불조심에 대한 점검을 습관화하도록 우리 여성들 특히 주부들은 지도군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잠자리에서 男便들이 피우는 담배불에 특별한 관심이 쏟아져야 하겠다

둘째로 전기기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기구를 취급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몇년전에 집안 어른께서 石叻 스도브에 불을 켜둔채로 급유하시다가 잘못되어 큰 火傷을 입으시고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신 일이 있으셨다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었다

이런 불행한 일은 불의 취급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렇듯이 유류에 의한 불행한 사고 나아가서는 큰 화재의 발생은 지식부족과 소홀한 안전책인이 원인이다

전기취급 또한 이와같다

우리는 사용중 급유나 이동을 금해야 삼각이며 사용 以後엔 반드시 안전책인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알아야 하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화재발생을 상상하고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행동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로 유아 노인등을 집에 두고 外出하는 경우에 이웃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가정주부가 외출한뒤의 화재는 그 발견과 소방서로서의 신고가 지연되어 화재가 크게 확대될 확률이 크며 이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을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특히 유아

를 남겨두고 하는 外出時에는 성냥 라이터의 불장난이 가능하므로 火災發生주의 매우 크다고 본다

또한 老人이나 신체 부자유자에 있어서는 담배불이 이불등에 떨어지거나 의복에 불이 붙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 또는 노인등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는것을 가끔적이면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의 외출엔 반드시 이웃의 잘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로 병자 유아 노인 기타 신체부자유자 등에 대한 안전한 취침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자 신체부자유자 그리고 자

력피난을 할 수 없는 유아등의 피생이 땅을 수가 있다 특히 병자 유아 노인에 있어서는 안전한 취침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침장소로서는 항상 파기 취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보호자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혹 화재가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구출하는데 용이한 장소여야 한다

이는 가정 주부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복도 계단등 곤란하는 통로엔 장애물이 없도록 지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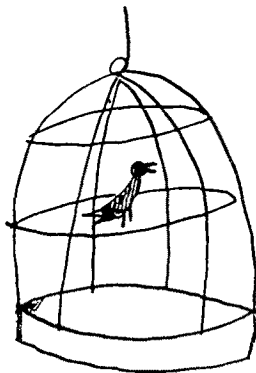
는 것 또한 피어를 피대안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밝힌다 이는 유아 노인에 하하지 않고 壯年층까지 포함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집구조가 西洋式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크게 다뤄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以上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우리 여성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여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조금도 과소경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하나의 轉板를 마련하여 화재예방에 보다 적극적이거나 자발적인 參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끝 —



{ 全國主婦隨筆野賞募集應募作 }

允 姬

金 正 玉

<제주시_2도1동 1365번지>

나에게는 친구 윤희가 있다
 윤희와 난 대략 1학년 부터 졸업
 까지 줄곧 단짝이었다
 시골이 고향인 나는 신학기가 시
 작할 때마다 이사를 했고 심지어는
 한때 윤희네 집 옆으로 옮겨가기 까
 지 할만큼 가까이 있고 싶어했다
 그러나 실상 외면적으로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내적으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우리사이엔 있었다
 선의의 경쟁이랄까?
 일종의 질투가 보이지 않게 잠재
 해 있었다는 얘기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윤희는
 나보다 얼굴이 예뻐다
 신경질적인 나의 성격에 반해 윤희
 는 좀체 화를 내거나 덤벼대지 않
 는 자분한 성격이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윤희의 인
 기는 나보다 압도적이었다
 학업성적도 나보다 나았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왔지만 애
 써 윤희보다 내가 나은 점을 들자
 면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
 했다는 것 뿐이었다

윤희네집은 약수등 산 아래에
 있었다
 글자 그대로 다 허물어진 판자집
 이었다
 윤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
 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윤희 어머니는 집에서 국수를 놀
 리 팔고 있었다
 물론 허가없이 몰래 하는 것이었
 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윤희는 한번도 어려운 내색이나 생
 활의 불만을 내색한 일이 없었다
 그게 윤희의 최선의 자존심이었
 다
 우린 4년동안의 우정을 나누면서
 졸업했다
 졸업후 윤희는 무역회사의 비서
 자리를 구해 취직했고 난 고향에
 내려와 교편을 잡게 됐다
 고향에 내려온 후에도 편지 왕래
 를 했다
 그러나 작년 1월에 접어 들면서
 거의 한달간 한통의 편지도 없었다
 그러다가 겨울 방학이 다가오던

어느날 우연히도 난 신문에서 윤희
 의 얼굴을 봤다
 난로 과열로 인해 화재 발생
 지난 밤 11시 40분경 약수동에
 서
 어머니는 사망
 딸 26세의 노 윤희양 극적으
 로 구출됐으나 전신에 심한 화
 상으로 생명 위독
 나는 다음날 서울행 비행기를 났
 다
 윤희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한 파상으로 특히 얼굴 부분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윤희의 예쁜 얼굴이 추악하게 우
 글거리고 있었다
 코가 비틀어지고 불이 뚱게지고
 입이 윤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상
 처가 심했다
 여자의 생명과 같은 얼굴이 영진
 없이 뚱개져 있었다
 극진한 의사들의 배려로 윤희는
 겨우 의식을 찾고 있었다
 보조자로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머질이 지난 뒤 윤희는 정형수술
을 받았다

그것도 일자 이자 삼자에 걸쳐서
받았다

그러나 완벽한 원내의 얼굴을 갖
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의가
의 얘기가 들었을 땐 난 병원 복도
에서 영영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그것도 스물여섯의 다 큰 자녀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말이다

기기가 모든 비용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난 택방으로 귀어다니면서 지지
않은 수술비용을 조달하기에 안달
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름 윤희는 나
아갔다

그러나 윤희는 한모금의 물조차
마시기를 거부하였고 아무도 만나
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보러가기 안
았다

아름은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글
조대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수습해
일어설 수 없다는 나약함이 윤희를
지배하고 있었고 윤희는 이미 죽
음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윤희의 정신적
괴도와 나약함이 석경이 되었다

나는 꼬박 겨울방학 석달을 서울
에 있었다

아무도 거르지 않고 병원을 들락
기했다

처음에 윤희가 나조차도 만나려
들지 않았을 때 의사와 간호원들까
지도 눈물은 글썽이며 윤희를 설득

시켰고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있었
다

윤희는 운동 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었다

윤희와 난 은었다

윤희의 깊고도 깊은 눈에선 끊임
없이 눈물이 내렸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수 없
이 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수술비용과 입원비용등은 윤희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께 신세를 지
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과해보험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또
다른 어떤 대책도 없이 당한 일이
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고향에 내려와서도 줄곧 편
지를 보냈고 윤희도 드문 드문 답
장을 보내왔다

몸의 파장은 거의 회복이 됐고
얼굴도 아주 성공적으로 원래의 모
습과 같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씨 보내왔다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어가고 있
음을 알 수 있어서 난 무엇보다도
기뻐다

그러다가 다음엔 퇴원을 했다는
얘기도 보내왔고 다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서
쉬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보내왔고
항상 사장님께 신세를 갚아야 한다
는 생각으로 소조하고 답답하다는
걱정의 얘기도 보내왔다

그 후 윤희의 화재사고가 있는 일
년이 지난 셈이되는 올해 일월에는
조그만 수예점을 하나 하게 됐다고
소식은 보내왔다

그런데 올 1월에는 서운가서 윤
희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나의 개
인적인 바쁨으로 가지 못하고 말
았다

수예점을 차린 이후로 윤희도 바
뻤는지 소식이 뜸했고 나도 그럭저
럭 아다보니 마음은 하늘같지만 자
주 편지를 보내질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난 너무 반가
운 소식을 받았다

윤희가 오는 6월 17일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신랑감의 프로필은 비밀이라는
농담까지 걸려서 쓸 만큼 경신적으
로 많이 밝아져 있는게 더욱 반가
웠다

난 정말 기쁘다

그리고 윤희의 결혼을 진실로 축
하할 것이다

어쩌면 다시 울어버릴지도 모르
겠다

윤희와 불고

프로필을 비밀로 해 두었던 윤희
의 신랑에게 난 바랄 것이다

과제로 입었던 외형적 아픔은 물론
마음의 상처도 달콤히 지우어 주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윤희를 사
랑해 주라고 감히 나는 명령()할
것이다

난 벌써 마음이 들떠 있다

윤희와 나는 윤희의 남편이 될
사람과 셋이 오부이 앉아 양그럽고
구수한 코오리를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서울 어느 모퉁이의 조그마한
잡집 분위기 - 생각하며 들떠 있는
것이다

— 끝 —